

설교제목 : 신실하라: 잊혀지든 알려지든 (창세기 40장)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제 이름은 John이고 이곳 Willingdon에서 사역중인 목사 중 한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몇 주 동안 예배를 오지 않으셨다면, 무대에 있는 이 놀라운 예술 작품들을 보지 못하셨을 것이고, 이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예술 작품들은 걸작입니다. 이 작품들은 예술가인 제리 목사님이 창작하신 것으로, 시간과 창의력, 기술, 비전, 세심한, 페인트, 캔버스, 붓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들입니다. 이 시리즈가 끝나면 저도 그 중 하나를 갖고 싶습니다. 집에 들이려면 접어야 할 것 같아서 제일 큰 작품은 아마도 사양할듯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는 시리즈를 몇 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제작중인 걸작"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진정으로 "걸작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노력하며,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깨어진 관계에서 놀라운 화해를 경험하고, 실제로 한 지역을 기근에서 구합니다. 요셉이 화려한 색동옷을 입은 소년이었을 때 이 모든 일이 그의 삶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도 그러하듯이, 요셉의 삶의 다양한 순간에서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요셉을 빚어가시며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힘들었고, 어떤 때는 꽤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제작중에 있는 걸작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가장 낮은 순간 중 하나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여기 오지 않으셨다면,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창세기 37장과 3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성공과 번영으로 가는 탄탄대로의 쉬운 길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꽤나 크고 거친 기복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자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모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조언 한 가지는, 특별히 한 자식을 편애하지 마세요. 이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만약 자녀가 하나라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요!

물론 각 자녀는 다르고, 어떤 자녀와는 더 많은 공통점이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의 역할은 각 자녀와 의도적으로 연결되고,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발견한 다음, 그들이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편애받는 자식이었고, 그는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는 긴 소매가 달린 색동옷을 받았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들처럼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매우 보호하며 가장 사랑하는 자식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자였지만, 그의 형들 사이에서는 가장 미움을 받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때문에 화가 났고, 요셉은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 꿈들을 형들에게 열심히 이야기 했습니다.

앞서 부모님들께 자녀를 편애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조언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효과적인 형제가 되는 기본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면,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세요!

하지만 아마도 젊음의 자부심, 열정, 순진함, 미성숙함으로 인해 요셉은 자신이 주인공인 꿈을 두 번이나 형제들과 나눴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막내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멋진 꿈이네요. 내 형제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요셉의 시작은 꽤 좋았습니다. 그는 편애받는 자식이었고, 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그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에게 둘 다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집트에도착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는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을 위해 일하게 되었고, 그의 모든 일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3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는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 지난주 리처드 목사님이 "보디발 부인"이라고 부르셨죠 - 그녀는 요셉에게 끌렸고, 그와 함께 자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요셉에게 접근했고, 요셉은 저항하며 도망쳤지만, 보디발 부인은 이야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꾸며 요셉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다른 죄수들 사이에서 신임을 받았고, 죄수들 사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은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다시 나빠지거나 적어도 요셉이 선택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걸작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것이 쉽고 빠르거나 단순한 과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과 기쁨,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창세기 40장에서 말입니다.

- 1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 2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 3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 4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 5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 6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 7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 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 9 술 말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 10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 11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 12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 13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말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 14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 15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 16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 17 맨 뒷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 18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 19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 20 제삼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말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 21 바로의 술 말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 22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 23 술 말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여러분 중 일부는 “절대 제빵사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항상 콕스 브레드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리 좋아보이지 않네!”라거나 “생일 파티는 좀 위험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점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요셉 이야기의 두 새로운 인물인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소개됩니다. 본문은 이 두 사람이 바로의 신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입문 수준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의 일은 왕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Tim Hortons의 도넛 메이커나 레스토랑의 서버가 왕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했을까요? 음식과 음료는 잠재적인 암살자가 왕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왕에게 취약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뢰할 수 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충성스러워야 하며,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들은 바로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이야기는 그들의 범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그곳은 요셉이 책임지고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걱정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 이야기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꿈을 통해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꿈을 주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이야기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해석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해석이 분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레이 목사님이 몇 주 전에 말씀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족과 세계 여러 곳에서 꿈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무슬림들이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꿈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에 대한 꿈을 끈적이 있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떠나기 전에 저나 주황색 이름표를 가진 교회 관계자들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꿈에서 본 예수님을 알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중요한 삶의 방향 결정을 하신 교회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꿈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되고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성의 척도가 아니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주요 방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끌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기 위해 꿈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술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은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 꿈에 대해 묻고 해석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8절)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매우 구체적인 해석을 주셨습니다. 해석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요셉이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해석은 술 관원장에게 매우 좋았지만, 빵굽는 관원장에게는 매우 나빴습니다. 술 관원장은 자유와 생명을 얻었지만, 빵굽는 관원장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빵 굽는 관원장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술 관원장에게서 도움을 받을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제발 바로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무죄이며, 사실 저는 이중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이곳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저는 도둑맞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악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두 다른 죄수 사이의 대화 후 며칠 뒤,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생일 파티이거나 최악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술 관원장은 회복되었고, 빵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끝납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이 감사한 마음으로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그의 사정을 호소했다. 바로는 공정하고 관대하여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많은 양의 식량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오랜 가족과 재회하게 하였다.” (상상된 결말)라고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전혀 극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의 끝과 다음 장의 시작 사이에는 만 2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이 낮은 곳에서 끝납니다. 그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낮은 곳조차 요셉의 삶이라는 걸작이 되어가는 또 하나의 붓질입니다.

이 이야기를 산만하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몇 가지 교훈을 얻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제빵사는 위험한 직업이야! 라든가 혹은 짜증 나는 막내 동생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적어두신 것 외에도, 요셉의 낮은 순간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교훈이 있습니다:

- 기꺼이 하라 :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 신실하라: 잊혀지든, 알려지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요점: 기꺼이 하라 :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기억하기 쉽게 여러 개의 'W'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요청하시든 기꺼이 사용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점에 대한 훌륭한 예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사용될 준비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세 가지 징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죄수들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창세기 39:23). 그래서 그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적극적이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죄수들의 감정에 민감했습니다.

7절에서 요셉은 “어찌하여 오늘 너희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돌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으며, 형제들에 의해 팔려온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에게 집중되어있고, 억울함과 분노의 이유가 있다면, 요셉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격려가 되는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위험할 수 있는 은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꿈 해몽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요셉의 해몽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한 해석은 매우 부정적이어서 요셉에게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떤 시기나 역할에서 정말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곳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정말로 다른 일을 하고 싶었을 때, 매우 어려운 리더십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특정한 방식으로 은사하시고, 특정한 역할을 위해 특정한 시기에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저도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가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그의 사역 임무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센 폭풍우로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결국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요나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요셉보다 요나와 더 쉽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에게서 배우고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며, 그래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술 관원장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아닌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은

두 번째 요점은 신실하라 - 잊혀지든 알려지든

요셉의 삶에서 이 에피소드는 우리 인간의 기준에 따르면 나쁘게 끝난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바랬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아니하고 잊어버렸느니라.” 이 말씀이 매우 인간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술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다시 일을 하며 자유를 즐기고 다음의 큰 일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에게는 그것이 정말 끔찍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술 관원장이 왕 앞에서 요셉의 사정을 이야기할 날이 될 것인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는 2년동안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 번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분노,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잊혀지든 알려지든 하나님께 신실할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때가 맞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의 성품을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형성은 그가 던져진 감옥 안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숙련된 예술가는 기다림의 시기에 필요한 중요한 붓질이 있습니다. 요셉은 잊혀졌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에도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잊혀지든 알려지든 그는 신실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알려질 것이지만 이야기의 이 시점에서는 잊혀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실했습니다. 비록 포기하기 쉬웠을 것이고,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좌절감을 느꼈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께 사용되기를 원했다는 표시가 다음 장들에 나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후 곧 바로 성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죄수가 감옥에서 나올 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잊혀진 이 순간을 볼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지나치게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이 더 빨리 일하시길 바라거나, 지나치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더 천천히 일하시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빨리 일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했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한 가지 예는 약 10년 전 윌링던에서 성기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전의 저는 좋아했던 직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셨으며, 그 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윌링던 역사상 약간의 혼란과 고통을 겪은 순간에 저를 이곳 윌링던의 목회자로 매우 분명하게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 크리스티에게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신 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만나게 되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이 역할은 제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고, 특별히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목사를 해본적도 없었고, “저는 절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때가 되고, 이 역할은 이 시기에 너를 위한 것이다. 너는 나의 초대를 받아들이겠느냐?” 저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초대에 하나님의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방향과 저의 때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윌링던에서 일하는 것이 감옥에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종종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두 장 40장 끝과 41장 시작 사이의 2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형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감옥에서 요셉을 지도자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동일한 꿈 해석의 은사를 사용하여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 후에 엄청난 국가적 및 지역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요셉이 감옥에서의 경험을 다음 역할을 위해 준비하는 방식으로 잘 헤쳐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 분노, 비통함 또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로 지혜롭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다음 시즌, 다음 역할을 위한 시간이 왔을 때 그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과거의 순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야기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현재의 경험과는 다른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말 그대로 감옥에서 잊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곳에서 그런 경험이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정말 원하고 자격이 있는 승진에서 누락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학업을 매우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분야에서 직업을 찾지 못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결혼하고 싶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결혼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분명한 기술이나 재능이 있지만 사용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PR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지만 고향에서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잊혀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잊혀지든 알려지든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걸작을 그리고 계시며,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기에 있거나 잊혀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이 모든 사항이 포함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 수 있나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적극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최적의 때에 대한 생각이 종종 하나님의 최적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꺼이 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시련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어가게 하십시오.

가능한 한 많은 영적, 정서적, 신체적, 관계적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시킴으로써 다음 임무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이것들은 우리가 비통한 마음, 분노 및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자세와 행동들입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하여 우리의 생각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약의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5:3-5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것들은 서로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형성 작업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신약의 또 다른 구절은 특히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시기, 시련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기, 또는 잊혀졌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히브리서 12:1-3:

- 1 이렇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1**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는 요셉에게서 영감과 가르침을 얻을 수 있으며, 그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엄청난 적대감을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다른 선택을 원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42에서, 배반당하고 당국에 넘겨지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주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안내자를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잊혀지든 알려지든 신실하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기꺼이 섬깁시다.

이 설교 시리즈에서 우리는 눈앞에서 걸작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모든 붓질을 통해 높은 순간과 낮은 순간에도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더 많은 질감이 생기며,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됩니다. 각 붓질은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순종한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세밀한 붓질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화면에 몇 가지 묵상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도

로마서 5:1-5: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묵상질문

1. 나는 진정으로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꺼이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 기다리는 동안이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신실함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